

광주FC, 강한 압박·공격력으로 홈 무패행진 이어간다

FA 포함해 안방에서 5경기 4승 1무...K리그1 오늘 제주와 대결 한때 제주서 한술밥 먹은 이정효-남기일 감독 지략 대결도 '눈길'

광주FC가 안방에서 홈 무패행진을 이어간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K리그1 2023 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최근 두 경기에서 광주는 승점 4점을 만들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대구원정에서 4-3 승리는 거뒀지만 3연속 득점 뒤 3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고민을 남겼다.

지난 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는 63%의 점유율에도 10개의 슈팅을 특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0-0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연승으로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홈 무패는 지켰다.

광주는 홈에서 FA컵 포함 5경기 무패 행진(4승 1무)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도 안방에서 펼쳐지는 만큼 이정효 감독은 적극적인 압박과 강력한 공격력으로 홈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각오다.

앞선 강원전에서 무득점에 그쳤지만 광주는 적극

적인 공세를 펼치며 상대를 위협했다. 허술과 이희균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공격의 활로가 됐고, 교체 투입된 산드로도 연계 플레이로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네덜란드 국제 수비수' 티모는 탄탄한 대인방어로 무실점을 이끌며 경기수훈선수(MOM)에 선정됐다.

안영규를 대신해 투입된 아론도 안정된 수비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를 묶으면서 맹활약했다.

골키퍼 김경민의 든든한 활약도 계속됐다. 김경민은 경기 막판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며서 팀에 승점을 안겨줬다.

이번 경기를 대신해 투입된 아론도 안정된 수비와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를 묶으면서 맹활약했다.

이정효 감독은 '남기일 사단'으로 남기일 감독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췄었다. 이정효 감독이 광주 사령탑으로 부임하기 전에도 제주 수석코치로 남기일 감독과 함께 했었다.

2부리그 '우승 감독'으로 1부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서로를 잘 아는 남기일 감독과 어떤 승부를 펼치게 될지 K리그 팬들의 시선이 광주에 쏠리게 된다.

시즌 초반 흐름은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4승 1무 3패(승점 13)의 전적으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제주는 2승 2무 4패(승점 8)로 10위에 올라있다.

제주는 FA컵 포함 최근 3연승을 달렸지만 지난 주말 주말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또 주전 골백 이주용이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는 국가대표 주장 출신 구자철을 필두로 이창민, 안현범, 김오규, 김동준, 유리, 헤이스 등 걸출한 스타 선수들이 즐비하다. 통상 상대 전적에서도 6승 5무 5패로 광주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21시즌에도 제주가 광주를 상대로 1승 2무를 거뒀다.

강원전 아쉬움을 털어내야 하는 광주는 주말에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를 만나기 위해 원정을 떠나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광주가 제주를 꺾고 승리로 홈 무패행진을 이룰 수 있겠는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를 상대로 홈 무패 잇기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3일 강원전에서 이순민(오른쪽)이 드리블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호남대 펜싱, 종별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 '정상에'

남자 사브르 개인 2위·단체전 3위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펜싱부가 제52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위, 남자 사브르 개인전 2위에 오르는 등 최강팀의 면모를 확인했다.

25일 호남대에 따르면 여자 사브르 단체전(오세연·최애나·정연수·임서진)이 영광군에서 22일 폐막한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호남대는 8강전에서 호원대, 4강전에서 한국체대, 결승전에서 동의대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남자 사브르 단체전(서영인·허진범·박정호·유수근)은 8강전에서 경남대를 꺾었으나 4강전에서 한국체대에 패해 3위에 입상했다.

박정호는 개인 8강전에서 최선우(한국체대), 4강전에서 김병수(한국체대)를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최종전에서 김재원(대전대)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병진 감독은 "타 대학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선수를 보강하는 바람에 모든 경기가 힘들었다"며



제52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맹활약한 호남대 펜싱부. <호남대 제공>

서 "겨울 방학때부터 고된 훈련을 함께해준 선수들과 모호정 코치의 노력 덕분"고 말했다.

호남대 펜싱부(지도교수 조규정)는 2011년 창단해 최다회(리우올림픽 대표), 권민아, 정성현(이상 국가대표 상비군), 박다운(청소년 국가대표), 양예슬, 김정미(이상 국가대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객들을 배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챔프전 진출해 주길" 광주체육회, 선수단 초청 지원·응원 약속



전갑수(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시체육회장 등이 24일 오세일 광주도시공사핸드볼 감독, 선수들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정구리그 2위를 차지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을 초청해 플레이오프 선전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전갑수 회장은 지난 24일 체육회 접견실에서 오세일 핸드볼 감독, 선수 등 20명을 초청해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2위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 다음달 3일 플레이오프를 앞둔 선수들에게 지원과 응원을 약속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최종전에서 삼척시청과 26-26, 무승부를 거두고 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선수단의 포스트시즌 진출은 2010년 창단 후 3년 연속 쾌거다. 강경민은 올시즌 득점 1위(195골),

어시스트 2위(109개)로 공격포인트 1위(304점)를 기록해 MVP에 선정됐다.

도시공사는 준플레이오프(SK-부산)에서 이긴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은 삼척시청(1위)과 5일부터 열리는 챔피언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의 경기력이 꾸준히 상승해 리그 2위와 PO 진출을 확정했다"며 "여세를 몰아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로부터 핸드볼 선수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테니스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성공리 마무리

광주테니스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한 '제6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지난 22-23일 광주진월국체테니스장과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단체전, 여자부, 지도자·동호인부, 혼합복식부, 초급자부 등 5개 부문에서 경쟁했다.

단체전 우승은 전라클럽이 차지했다. 올라운드 클럽이 준우승을, 토요파닉스와 한외클럽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여자부는 박명선(목포비타)-민복선(일로) 조가 결승서 임금남(환희)-전희정(디딤돌) 조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지도자·동호인부 우승은 김귀태-김민태(이상과기원) 조가 1위를, 전재현(완도우대)-정문기(바운드) 조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김동훈(나주



제6회 광주시협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전라클럽 동호인들이 김성남(가운데) 광주테니스협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린)-김재현(금천) 조와 임석현(광주지도)-강상규(무진클럽) 조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

혼합복식부에선 박종고-조영희(코레일) 조가 결승서 김정근-이민정(순천제일) 조를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권영일(STC)-신지연(삼운) 조와 기주형(화순)-서미영(광양중동) 조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초급자부에선 김정호-나영호 조와 최병희-유승주 조가 각각 남·여 입문부 우승을 차지했다. 초급자 1년부 우승은 남자 김강민-아지즈 조와 여자 박선주-박경아 조가 각각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키너, 프로당구 PBA 합류

'미스터 매직'이라는 별명으로 오랜 시간 세계 야마후어 당구계에서 활약했던 세미 세이키너(58-튀르키예)가 프로당구 PBA 투어에 합류한다.

PBA는 25일 "세계당구연맹(UMB) 세계랭킹 10위 세이키너가 PBA 투어 우선 등록에 합격해 2023-2024시즌부터 프로당구 무대에서 활약한다"고 발표했다.

세이키너는 뛰어난 실력과 매너로 '미스터 매직', '술탄', '튀르키예 프린스' 등 술탄 수석으로 불리는 튀르키예 당구 영웅이다.

1994년 3쿠션 월드컵 우승을 시작으로 2021년

까지 통산 월드컵에서 7차례 우승과 7차례 준우승을 이뤘다. 2003년에는 세계 3쿠션 선수권 정상에 오른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팀 3쿠션 선수권에서 튀르키예를 3년 연속 정상으로 이끌었다.

3쿠션뿐만 아니라 예술구 역시 최정상급 실력인 세이키너는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유쾌한 성격에서 나오는 쇼맨십으로 한국에도 많은 팬을 보유했다.

세이키너는 "PBA에서 활약 중인 튀르키예 선수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PBA 투어 무대를 목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2관 드림
- 3관 존 워 4
- 4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5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6관 드림
- 9관 존 워 4, 무명, 피기
- 7관 씨네커플 스토리의 문단속
- 8관 씨네커플 리바운드, 무명, 렌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